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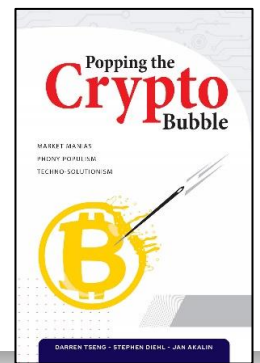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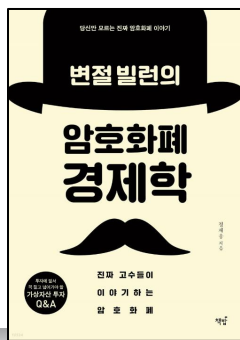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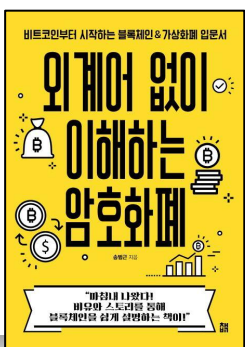
도서로 살펴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다양한 시각

[도서명]

- 외계어 없이 이해하는 암호화폐
- 변질 빌런의 암호화폐 경제학
- 비트코인의 지혜의 족보
- 블록체인과 코인 누가 돈을 버는가
- 암호화폐 버블의 붕괴(Popping the Crypto Bubble)

■ 가상자산 서적 트렌드

- 2022년 가상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위축
 - 새해 전망에 있어서는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되찾아올지, 아니면 추락이 가속화될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 혹은 새로운 기술 측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편
 -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가 추진되고 있는 등 연내 입법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제도권 편입도 현실화되고 있는 중
- 국내외에서 발간된 가상자산 도서 중 언론 및 독자평, 전문가 추천 결과 등을 반영해 총 5권을 선정하여 간단하게 소개
 - 시중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수많은 도서들이 발간되어 있는데, 저자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 그 내용이 가지각색
 - 기존에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도서가 주를 이뤘다면, 최근에는 시장에 대해 냉정한 메시지를 던지는 도서들이 주목받고 있는 편
 - 가상자산 입문자를 위해 쉽게 설명하거나 경제학, 인문학을 통해 시장을 접근하는 등 다채로운 시각을 가진 도서들이 발간
 - 마지막으로 소개한 ‘암호화폐 버블의 붕괴(Popping the Crypto Bubble)’는 국내 번역본이 없는 관계로 연구자가 특정 챕터만 요약하여 수록하였음
 - 요약 관련해서는 저자(스테판 딜)에게 직접 서면 허락¹을 받았으며, 원활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의역으로 진행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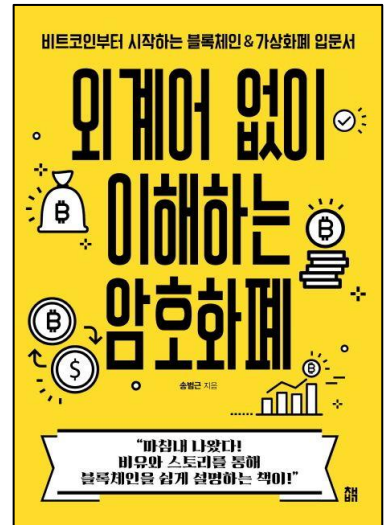


¹ [저서 요약 및 번역 관련 저작권 문의에 대한 저자 ‘스테판 딜’의 답장]

This is fine. A summary of the book is fair use. So long as it cites the source I don't see any issue. Go ahead.

○ [외계어 없이 이해하는 암호화폐]

- 저자: 송범근
- 특징: 배경지식이 부족한 독자들을 타겟으로 어려운 전문용어보다 친숙한 개념을 활용하여 쉽게 설명. 암호화폐를 처음 접하거나, 기존에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입문서
- 핵심 3문장
 - 1) “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에는 투자하지 말라”
 - 2) “블록체인은 그저 기술일 뿐이다”
 - 3) “블록체인은 이제 막 걸음마를 뒀을 뿐이다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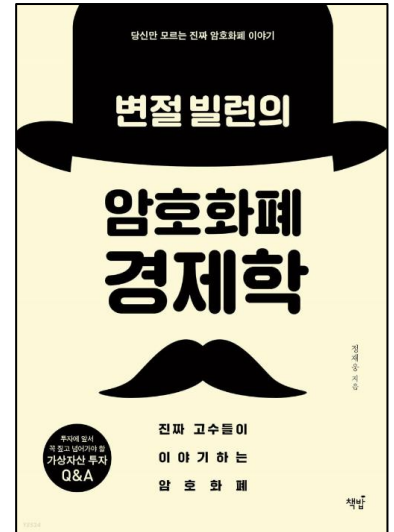


주요 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i>화폐와 비트코인</i> | 화폐의 본질과 비트코인 비트코인으로 살펴보는 블록체인의 원리 비트코인이 좋은 점 비트코인이 안 좋은 점 비트코인의 경쟁자들 |
| <i>디앱과 이더리움</i> |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, 디앱 탈중앙화를 꿈꾸는 분야별 디앱 디앱의 시초,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경쟁자들 |
| <i>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리플</i> | 프라이빗 블록체인 리플 |
| <i>암호화폐의 미래</i> |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알아야 하는 진짜 이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진화 |

○ [변절 빌런의 암호화폐 경제학]

- 저자: 정재웅
- 특징: 경제학 원리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. 게임이론, 인플레이션, 빅맥지수 등의 경제학적 용어를 알아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장점
- 핵심 3문장
 - 1) “화폐는 어떻게 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을까”
 - 2) “필요한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조달하는 금융”
 - 3) “혁신의 측면에서 보면 가상자산은 화폐로써 ‘창조적 파괴’를 이루었다 볼 수 있다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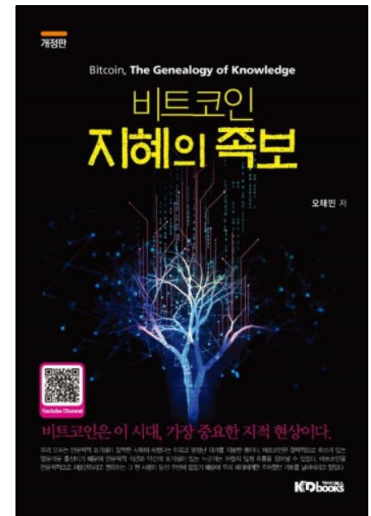


주요 목차

| | |
|--|---|
| <i>화폐의 과거와 현재</i> | 그 의미와 역할이 다양해진 화폐의 역사 화폐의 등장과 발전: 금에서 금 태환 정지 선언까지 화폐의 전환: 브레튼우즈체제의 성립과 달러의 부상 브레튼우즈체제의 종말과 진정한 달러의 시대 |
| <i>암호화폐의 등장</i> |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불만 비트코인의 등장과 그 핵심인 블록체인의 발전 암호화폐의 또 다른 버전 이더리움의 등장과 발전 가상자산시장의 대안으로 등장한 알트코인과 그 변화 De-Fi와 NFT의 등장,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술 다시 2018년 가상자산 버블: 가상자산은 화폐가 될 수 있을까 |
| <i>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, 블록체인의 기술, 그리고 경제학</i> | 화폐경제학: 우리 일상을 움직이는 힘 제도경제학 관점에서 본 암호화폐 금융경제학 관점에서 본 암호화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장점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한계: 시장의 문제 |
| <i>화폐의 미래, 가상자산의 미래</i> | 다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, 달러의 시대는 끝났는가 금융의 시대: 실물과 금융 암호화폐, 가상자산, 그리고 CBDC |

○ [비트코인, 지혜의 족보]

- 저자: 오태민
- 특징: 비트코인을 인문학 관점에서 해석한 도서.
술술 읽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, 일반적인 도서와는 접근하는
관점이 독특해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음
- 핵심 3문장
 - 1) “비트코인에는 엘리트가 드나들 수 있는 뒷문이 없다”
 - 2) “네트워크에 올라온 디지털 자산들은 기존의 금융 관련
범주들을 무가치하게 만들 것이다”
 - 3) “평온한 나라의 국민에게 비트코인은 한낱 투기 수단이거나
흥미로운 발명품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위기에 처한 국가의
시민들에게는 삶과 직결되기에 대체품이 따로 없는 희망이다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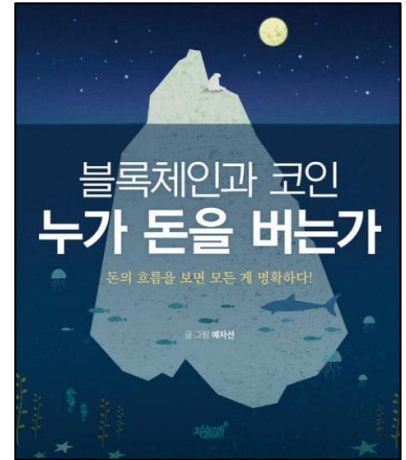
주요 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--|---|
| <i>비트코인의 지혜</i> |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기회 대청봉 코인은 성공할 수 있을까? 신천지와 페이스북 정부와 게임을 해서 지지 않으려면 인문학적 질문의 부재 화폐에 얽힌 인문학적 질문을 무시하는 경제학 전공자들 오리너구리 화폐는 사회적 장부일 뿐 (이외에도 더 많은 소제목이 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) |
| <i>비트코인의 족보</i> | 비트코인의 이해를 돕는 인문학의 핵심개념 화폐이야기 비트코인과 시장의 흐름 핵심용어와 개념 스마트콘트랙트의 개념과 쟁점 |

※[비트코인의 지혜] 파트에는 중간레벨 제목이 부재하여 소제목을 기입

○ [블록체인과 코인 누가 돈을 버는가]

- 저자: 예자선
- 특징: 가상화폐를 ‘돈의 흐름’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. 충분히 합리적인 질문을 하고, 이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직설적으로 표현. 저자의 뚜렷한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살펴보는 것도 글에 빠져드는데 큰 도움
- 핵심 3문장
 - 1) “돈의 흐름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하다”
 - 2) “어떤 기술이 진짜인지 구별해야 한다”
 - 3) “돈 버는 사람은 블록체인 코인 만들고, 토큰형 코인 찍고, 거래소 하는 사람들이다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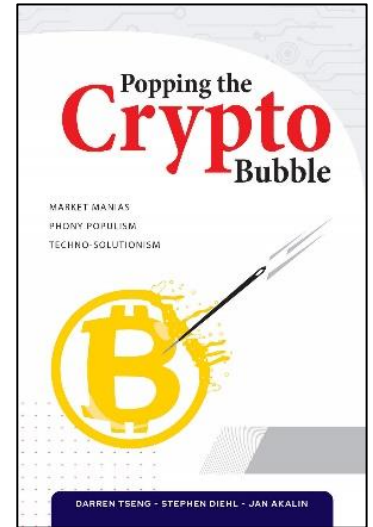


주요 목차

| | |
|---|--|
| 1 | 이거 하나만 질문해보자 - 정말 코인으로 결제를 받는다고? |
| 2 | 블록체인의 기술적 원 - 기본만 알면 ‘기능’과 ‘활용’은 저절로 판단된다 |
| 3 | 기술 발전? - 다른 블록체인과 코인들은 뭐가 다를까? |
| 4 | 비즈니스, 각 국가의 입장, 붕괴 조짐 |
| 5 |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,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? |

○ [암호화폐 버블의 붕괴(Popping the Crypto Bubble)]

- 저자: 스테판 딜(STEPHEN DIEHL) 외 2명
- 특징: 엔지니어 시각에서 바라본 크립토 시장을 설명하고 있으며, 암호화폐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할 당시 집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가진 불안전성과 위험을 끊임없이 제기
- 핵심 3문장
 - 1) “암호화폐는 어려운 기술 용어를 사용하고 비주류 경제학 개념을 그럴듯하게 차용했지만, 실체는 대중들의 감정을 정교하게 이용한 사기에 가까움”
 - 2) “개발자들은 그들이 꿈꿔왔던 모습과 다르게 변해버린 현실 세계에서, 이를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탈중앙화라는 기술자유주의 환상에 빠지게 됨”
 - 3) “블록체인 기술은 규제된 환경에서 고객 데이터와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한계와 결함이 존재”



주요 목차

| | | | |
|----|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서문(Introduction) | 14 | 스마트컨트랙트(Smart Contracts) |
| 2 | 크립토의 역사(The History of Crypto) | 15 | 블록체인주의(Blockchainism) |
| 3 | 역사적인 시장 매니아 (Historical Market Manias) | 16 | 사기&스캠(Frauds&Scams) |
| 4 | 경제적 문제(Economic Problems) | 17 | 웹3(Web3) |
| 5 | 기술적 문제(Technical Problems) | 18 | 스테이블코인(Stablecoins) |
| 6 | 가치적 문제(Valuation Problems) | 19 | 크립토 저널리즘(Crypto Journalism) |
| 7 | 환경적 문제(Environmental Problems) | 20 | ICO(Initial Coin Offerings) |
| 8 | 암호화폐 문화(Cryptocurrency Culture) | 21 | 랜섬웨어(Ransomware) |
| 9 | 윤리적 문제(Ethical Problems) | 22 | 금융 포퓰리즘(Financial Populism) |
| 10 | 크립토 종교 집단(The Cult of Crypto) | 23 | 재정적 허무주의(Financial Nihilism) |
| 11 | 카지노 자본주의(Casino Capitalism) | 24 | 규제(Regulation) |
| 12 | 크립토 거래소(Crypto Exchanges) | 25 | 결론(Conclusion) |
| 13 | 디지털 금(Digital Gold) | | |

[참고] 암호화폐 버블의 붕괴(Popping the Crypto Bubble)

■ 서문(Introduction)

- 암호화폐는 어려운 기술 용어를 사용하고 비주류 경제학 개념을 그럴듯하게 차용했지만, 실체는 대중들의 감정을 정교하게 이용한 사기에 가까움
- 암호화폐는 현재의 권력 구조와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써 경제, 기술, 정치, 법률, 윤리, 문화 등을 아우르는 21세기 가장 흥미롭고 파괴적인 기술로 등장
 -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중앙 권력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, 암호화폐는 이에 대해 “중앙집중식 권력남용을 계속해서 방관할 것인가? 차라리 무정부주의가 낫지 않은가?”라는 극단적인 질문을 던지며 대중들의 호응을 얻음
- 이 책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진 기술적인 한계, 대중들이 가진 환상, 지난 시간 동안 이론 결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 실체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 함
 - 물론 기술적 완성도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를 수 있지만, 적어도 오늘날의 암호화폐는 여전히 기술적, 보안적, 경제적, 환경적 결점이 있음을 인지해야 함

■ 암호화폐 문화(Cryptocurrency Culture)

- 암호화폐 문화의 첫 번째 원칙은 기존의 권력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화폐를 재창조하는 것
 - 암호화폐 문화에는 ▲크립토아나키즘(Cryptoanarchism), ▲오스트리아 경제학파(Austrian Economics), ▲기술자유주의(Technolibertarianism)라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적 움직임이 존재
- [크립토아나키즘] 크립토아나키즘은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, 정치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가까움
 -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는 사회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자, 이를 국가 자체의 고유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아나키즘이라 불리는 무정부주의가 등장
 - 특히 크립토아나키즘은 정부와 국가가 시민의 사생활 및 재정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저항하며 완전한 자유를 주장
 - ①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완전한 익명성
 - ② 검열이나 제한 없는 완전한 언론의 자유
 - ③ 규제나 보호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

- 국가의 핵심 기능은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우월성으로 국가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크립토아나키즘의 밑바탕
 - 크립토아나키즘은 국가의 완전한 파괴 대신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로 관료주의를 해체하며 인터넷을 통해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주장
 - 이들에게 암호화 기술은 약자에게는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 강자에게는 투명성을 강요하는 핵심적인 수단
- 아니키즘 정치의 특징은 그들이 원하는 사회가 ‘실현 가능’을 넘어 ‘이미 실현된’ 것처럼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대중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, 이는 사실 마케팅적인 장치에 불과
 - 민주주의에서는 집단적 권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게도 하지만, 크립토아나키즘에서는 기술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현혹
 -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‘현재 속한 집단으로부터의 자유’만을 의미하며, 결국은 크립토 세상이라는 또 다른 권력과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했을 뿐임
- **[오스트리아 경제학파]**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(laissez-faire)와 비개입적 정부 형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비주류 경제학파
-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관찰 및 측정과 같은 경험적 틀에 기반하는 정통 경제학과 달리 순전히 연역적 추론으로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이론화
 -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 도구로서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, 추상적인 추론과 언어적 논리를 사용하여 경제 현상과 인간의 행동에 관해 설명
 - 정부 역할론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대부분의 경제학파는 경기 침체 시 정부의 개입은 필수라는 시각이지만,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이에 대해서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각
-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정치적 소명은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
 - 특히 국가가 마음대로 돈을 인쇄하지 못하도록 금본위제(gold standard)²와 같은 상품 기반 화폐 시스템을 주장하고 옹호
 - 하지만 금의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 보유액을 초과한 경제 성장은 경제 위축과 주기적인 디플레이션 압박을 유발할 수 있음
 -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 생산 위축 → 가계 명목임금 하락 → 가계 소비 침체 → 기업 이익 감소 → 생산성 하락으로 악순환이 이어짐

² 고정 가격으로 돈을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 기반 통화 체제

- 비트코인과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매우 유사한 원칙과 이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를 적극적으로 수용
 -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암호화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리고 투자에 대한 합리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
- [기술자유주의]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가진 독특한 문화들은 기술 트렌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
- 해커 문화란, 시스템적인 제약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을 즐기는 개발자들의 문화 (컴퓨터 범죄 행위자를 지칭하는 해커라는 용어와 달리 여기서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)
 - 해커 문화의 철학은 인터넷이 처음 개발될 당시부터 존재했었고, 그들의 핵심적 가치는 ▲공유, ▲개방성, ▲분권화, ▲자유로운 접근성, ▲사회 개선으로 정의할 수 있음
- 해커 문화가 생겨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소스를 무상으로 공개하고, 누구나 수정할 수 있으며 재배포도 가능한 오픈소스 운동이 활성화
 - 이 운동을 계기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대거 출시되기 시작했는데, 대표적인 사례가 1991년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‘리눅스(Linux)³’ 라는 무료 운영체제(OS)
 - 여기에 더해 깃허브(GitHub)⁴와 같은 플랫폼에 프로그램 코드를 공유⁵하고, 전 세계 개발자가 참여하는 대규모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생겨나기 시작
-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해커 문화의 주류였던 급진주의는 온건주의로, 반권위주의적 성향들은 시장순응적 사고방식으로 변화
 - 해커 문화의 반권위주의는 “어떠한 노력이나 시도를 해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”는 ‘학습된 무기력(learned helplessness)’으로 인해 사라졌고, “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”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현실 세계에서 실없는 농담으로 전락
- 개발자들은 그들이 꿈꿔왔던 모습과 다르게 변해버린 현실 세계에서, 이를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탈중앙화라는 기술자유주의 환상에 빠지게 됨
 - 자유지상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탈중앙화라는 개념을 앞세워 도피주의적 환상을 만들었으며, 진보적 포용 대신 소수의 특권층이 권력과 자본으로 이익을 취하는 이념으로 변모

³ 윈도우와 같은 컴퓨터 운영체제 중 하나로, 컴퓨터 역사상 가장 많은 참여자가 관여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.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코드를 중심으로 개발한 것

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저장하고, 수정하고, 공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

⁵ 무료 라이선스 지정 시

■ 결론(Conclusion)

- 크립토 시장은 분노와 희망, 두려움, 탐욕, 그리고 이상주의로 가득 찬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보이지만,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이야기에 불과
- 크립토는 결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다양한 실험 중 하나에 불과하며, 금융의 ‘미래’라기 보다 오히려 포퓰리즘에 기반한 금융의 ‘과거’일 뿐
 -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아이디어 그 자체는 새로울 수 있지만, 인간의 내재된 욕망과 본성을 자극하는 메커니즘은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음
 - 수세기 동안 발생했던 사적 화폐 발행 및 투자에 대한 역사적 사건들은 다양한 결과와 교훈을 남겼고, 이들은 오늘날의 현행법으로 구체화되었음
 - 1800년대와 1920년대의 경제 위기 속 열풍과 공황 그리고 붕괴를 되새기면서 암호화폐가 이와 똑같은 비극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
 - 물론 기존 전통 금융시스템이 부유한 사람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, 그렇다고 암호자산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되기에는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
- 오늘날 우리는 암호화폐와 금융시장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선택에 직면해 있으며,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
 - 혁신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, 오히려 진정한 혁신이 번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이 필요함
 - 즉, 투자자들은 기업으로부터 공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기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
 - 하지만 크립토 시장은 기존 전통시장이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나아가고 있으며, 더 많은 불투명성과 시스템 위험, 사기를 부추기고 있음
- 기술이 주도하는 금권정치(plutocracy)⁶는 우리가 그렸던 미래가 아니며, 암호화폐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한 밈(Meme)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을 것

<선임연구위원 권세환(pursue312@kbf.com) ☎02)2073-5764>

⁶ 경제력이 있는 소수의 부유한 계층이 지배하는 정치